

도심형 ‘순천시티팜’ 복합문화공간 주목

시, 유리피언 상추·허브 재배
직접 수확·체험·교육 운영

청년 일자리창출 모델 구축
스마트팜 표준 모델 활용 기대

순천시가 조성에 운영 중인 도심형 스마트팜 ‘순천시티팜’이 작물 재배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에 자리하고 있는 ‘순천시티팜’은 순천의 지역성과 도심 속 스마트팜의 의미를 융합한 것으로, 약 40평 규모의 수직농장에서 5000주 이상의 유리피언 상추와 다양한 허브를 재배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도심 건물 내부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직접 수확 등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팜 이론 교육도 동시에 진행된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농장이다. 순천시티팜은 광량, 온도과 습도, CO2, 배양액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사계절 안정적인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시는 도심에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



도심형 스마트팜 ‘순천시티팜’을 찾은 방문객들이 시설 관계자로부터 작물 재배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자립 기반 마련과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확한 작물은 지역 로컬푸드 매장 등에 납품하고, 추가 판로도 지속 발굴 중에 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와 연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순천시티팜 운영으로 축적되는 재

배·유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도심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도시로 농업을 확장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 지원사업 및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직농장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로 청년공작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티팜 프로그램은 포털 검색창에 ‘순천시티팜’을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으며,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면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K-POP 페스티벌 아티스트 추가 투입

W3WAY·숨 신에 합류…독창적 라인업 완성

광양시는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에 신에 뮤지션 ‘W3WAY’와 ‘숨’을 추가 투입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축제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오는 17·18일 2일 간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 정상급 아티스트 라인업에 새로운 뮤지션이 가세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첫날은 경서, 아홉, 우디, 트리폴레스, 헤이즈 등이 나와 무대를 빛내고, 둘째 날 1부에는 어반자카파, 웬디, 2부에는 지원이, 박군이 출연해 발라드와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여기에 ‘W3WAY’와 ‘숨’이 둘째 날 1부 무대에 합류해 감동의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W3WAY는 감각적인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음악 색깔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아티

스트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팬덤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싱어송라이터 ‘숨’은 섬세한 보컬과 따뜻한 감성으로 인디·발라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더욱 많은 관객들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시는 이번 신에 아티스트 출연으로 정상급 아티스트와 신에 뮤지션이 어우러지는 K-POP페스티벌만의 독창적 라인업이 완성돼 축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기존의 탄탄한 최정상급 라인업에 신에 아티스트가 합류하면서 라인업이 더욱 풍성해졌다”며 “강렬한 퍼포먼스와 비주얼,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광양 K-POP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완도해양치유센터, 연휴에도 방문객 ‘복적’

일일 최다 678명 등 3600여명…가족 단위 이용객 많아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추석 연휴에도 방문객들로 복적였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에 3600여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678명이 찾아 일일 최다 방문객 수를 경신했다.

연휴 기간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힐링 이벤트가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국 각지에서 센터를 찾는 방문객을 보며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즌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청정한 해양 기후, 해조류, 해수, 머드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16개 테마의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로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이 11만명에 달하고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함평,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 탐사·정비 등 관리

함평군은 최근 환경부 주관 ‘2026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19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군은 지방비를 합쳐 총 38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6년간 49.9km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한다.

군은 상수관 교체와 함께 노후 수도미터 812전 교체, 누수 탐사·정비, 블록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부대 사업도 병행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의 군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운영·관리·유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국 기자 6263739@

‘나주영산강축제’ 가을축제 진면목 과시

가족·친구·연인 등 즐긴 체험·공연…세대 아우른 화합 무대

‘2025 나주영산강축제’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축제에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임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이 몰려다 지난 10일부터 시는 셔틀버스를 빙가람동 방면 5개소에 2대를 증차해 총 7대를 운행하고 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예술공연과 나주, 영산강의 역사를 다룬 콘텐트로 참여형 축제가 만들어졌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나주시립합창단의 ‘뮤지컬&라틴삼바’ 공연은 라틴의 경쾌한 리듬과 귀여운 율동을 결합해 큰 호응을 이끌었고 ‘위대한 개츠비’ 등 유명 뮤지컬 인기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어 시립국악단의 마당극 ‘삼색유산놀이’는 나주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판

소리와 사물놀이, 전통무용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는 남도의 맛과 흥을 뽐냈고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되살렸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케이팝 콘서트로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4인조 밴드 위시스, 실력과 5인조 걸그룹 리센느와 폭발적 무대를 자랑하는 래퍼 한요한, 감성적이면서 개성 있는 발라드 그룹 순순회가 출연해 청춘의 열정이 가득한 케이팝 콘서트로 가을밤을 수놓았다.

12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뽀로로 싱어롱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인을 위한 ‘세계 문화공연’과 ‘영산강전국가요제’ 결선이 진행됐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진양기업은 최상의 제품을 광주·전남지역 상하수도 배관자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

- 수량계 보호통 제조판매
- HP에폭시 조인트
- 타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류
- 원형맨홀(648) 제수변 철개류
- 소프트실 제수밸브 및 새들분수전
- 기타 상하수도 기자재 일체

수량계 보호통

일반형

동파방지형

스테인리스유니온

지수전 보호통

지수밸브 13-50A까지 사용가능

진양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로37 (월전동)

대표전화. 062-946-0110 / FAX. 062-368-9919

(주)남형산업 상하수도 기자재 전문업체